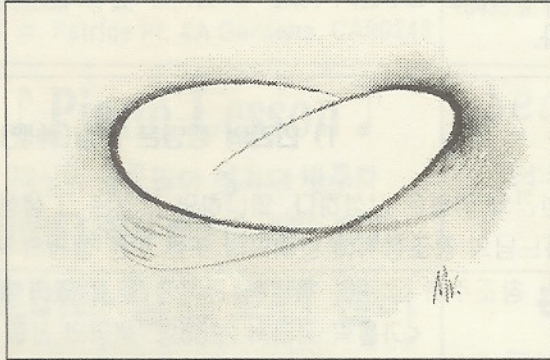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6주일(성모성월)
제29권 25호(나해) 2009 · 5 · 17

[묵상]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 12)

자신의 것이란 아무 것도 없고
오직 주인만을 위해 살아야 하는
종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풀려
해방과 자유를 만끽하던 이스라엘이
하느님과 맺은 시나이 산의 계약으로 받은
십계명을 천지의 최대 중대사로 여기고
이를 글자 그대로 지키려 애를 썼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느님은 온데간데없고
계명만 남아 백성들의 어깨를 눌렀다.
오늘 주님은 단 하나의 계명을 주신다.
“서로 사랑하여라.”는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 내놓은 사랑이다.
계명과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계명 안에 사랑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가 계명의 전부다.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만이
하느님을 알고 계명 전부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며 살자.”(大)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명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오후	9:00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M. E. Sharing (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 (2째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 미사	(연)한숙이 모니카, 윤춘의 스킨라스티카, 김소천 마리아, 신석균, 엄은섭 도로테오
	(생)유영균 우르바노, 김성택 프란치스코, 오현옥 발비나, 정현영 엘리사벳, 신동훈 마티아, 이덕유 힐라리오, 엄혜은 도로테아와 제니,조이 가정
주 일 낮 미사	(연)고준희 제임스,이현호 요한,이금순 마리아,황옥분, 윤춘의 스킨라스티카, 이영자 마리아, 이상현 베드로, 김중렬 아가비도, 변세연 대견안드레아, 김형수, 덕순이, 김서분 마리아, 최상기와 조명길 루치아, 서진경 안드레아, 박노현 요한, 임계순
	(생)이종원 베드로와 아네스 가정, 이종민 요셉, 이윤조 글라라, 정열모 미카엘과 미영 미카엘라 가정, 이재숙 테레사와 이재웅 안드레아와 혜선 안젤라 가정, 김정우 마지아, 민봉식 야고보와 김미성 미리암 가정, 이근모 마리오와 행자 리드비나, 김영경 클라라,김정숙, 김인태 레이몬드, 백삼위 성당 전신자들과 가정, 구마리아네 수녀, 남승원 토마스 사제, 박상대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cts) 10,25-26,34-35,44-48

- 화답송**
- ◎주께서 구원하심,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도다. <전례서가 73, 부활 제6주일 나해>
 - ◎새로운 노래를 주께 불러드려라. 묘한 일들 당신이 하시었도다. 당신의 오른손이 거룩하신 그 팔이 당신의 승리를 마련하였도다.◎
 - ◎주께서 구원하심 드러내 보이시고 그 정의 백성들 앞에서 밝히셨도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시는 그 사랑과 진실을 아니 잊으셨도다.◎
 - ◎땅끝마다 우리 주의 구원하심을, 모두가 우러러 보았도다. 온 세상이 주님 앞에 덩실덩실 춤추어라,즐기어라,기뻐하라,고에 맞춰 노래하라.◎

제 2독서 요한 1서(1 John) 4,7-10

- 복음**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복음 요한(John) 15,9-17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70	164
봉헌	364	255,241
성체	367	283,298
파견	324	326

현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1987년 신앙교리성 장관 직무를 수행하실 때 교황청 문헌으로 [생명의 선물]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5년 회칙 [생명의 복음]을 반포했습니다. 이 두 문헌은 우리 가톨릭교회의 “생명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번 주보부터 요약된 가르침을 게재합니다. 잘 공부하여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하도록 노력합시다.

1) 인간의 생명은 신성(神聖)하다.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생성 시초부터 하느님의 창조행위에 연결되며 또한 모든 생명의 목적이기도 한 창조주와 영원히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 교리서 2258항. 생명의 선물 5항>

어느 누구도 자신이 선택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 생명은 분명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분으로부터 왔습니다. 인간 생명은 거룩하신 창조주 하느님의 뜻에 따라 다른 어떤 피조물도 지니지 못한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특별함을 지니고 있기에 신성하고 존엄합니다. 인간 생명은 이 세상 삶을 통해 꽃피고 열매 맺음으로써 자기완성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그 길을 향한 여정에서 우리는 나의 생명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도 함께 잘 가꾸어 열매를 맺으라고 부름 받았습니니다. 어떤 생명도 그 소명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고 약한 생명도 하느님 앞에서는 소중합니다.

2) 인간의 생명은 언제나 선(善)한 것이다.

☞“왜 생명은 선한 것입니까? 인간은 비록 흠으로 빚어졌지만 이 세상에 하느님을 증언하는 존재이고,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표징이며, 그분 영광의 흔적입니다.” <생명의 복음 34항>

우리는 때때로 사람이 과연 선(善)한 존재일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면 죽어 마땅하다고,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인간 생명은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용서하기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의 생명에도 본성적으로 ‘지워지지 않는 하느님의 표징이 새겨져’(생명의 복음 35항) 있습니다. 그 죄인의 회심을 위해 하느님의 아드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생명까지 바치셨습니다. 모든 인간 생명 안에 하느님께서 심어 주신 선함을 믿어주고 용서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닫힌 마음을 열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당신의 사랑을 표명하십니다. 예언자 호세아로부터 시작된 예언자 전승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혼인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말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는 누가 되었든 간에 구체적인 행위로 응답해야 한다는 점을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에서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으며(레위 19,18) 요한 서간에서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라고 말합니다.(1요한 4,8)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구체적인 행위로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전례는 주님의 사랑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은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거센 반대와 위협을 온몸으로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오만과 계산된 논리가 빚어낸 인간 욕심의 결정체인 십자가는 역설적으로 하나님 사랑의 심오한 성격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된 당신의 외아들을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심으로 인간에 대한 당신의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권세를 눌러 이기고 승리했음을 온천하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히셨을

뿐만 아니라 죄악이 막아 놓은 당신과 인간 사이의 두터운 담을 헐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음마저도 무력화시키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심오한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됩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오늘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해 주신 삶의 공간을 사랑이 넘치는 행복의 자리로 만들어 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모여사는 것 자체를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세상이라야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두터운 불신과 뿌리 깊은 소통의 부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조건 없이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배려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려의 행위는 이웃을 향하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관심 어린 배려의 시선속에는 사랑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이미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에게 다가가기 위한 몸짓이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표출될 때만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구체적인 삶이 시작되고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병철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이호미 엘리사벳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태호 바오로	김교복 레오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박희자 마리아	권순길 체칠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문재원 클로틸다	신덕례 데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3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5 월
성모성월

◆ 성모의 밤 : 29일(금) 오후 7시30분 성전

- 각 단체 및 개인의 꽃 봉헌과 초 봉헌이 있습니다. 문의 : 전례부장 김명숙 루실라
- 준비물 : 묵주, 개인초, 가급적 한복착용

◆ 백삼위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봄이 한창 무르익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매년 백삼위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체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체육대회를 갖습니다. '가족한마당' 이름으로 마련되는 이 행사에 빠짐 없이 참여해 한가족 한공동체로서 특별한 하루를 봉헌합시다.

- 오늘 주일(17일) 낮미사(오전 10시) 후 운동장
- 진행: 대견회 * 주심: 이재정 요한
- 구역별 팀구성: 청팀-토렌스 동, 서, 북구역
백팀-토렌스 남, 하버/카슨, P.V.구역
- * 주일학교 청팀: 1,3,5,7,9,11학년(청색 티셔츠 입고 오기)
백팀: K,2,4,6,8,10,12학년(흰색 티셔츠 입고오기)
- * 학생들을 위한 게임과 상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식사: 각 구역별로 준비
- 종목: 피구, 오메미던지기, 물풍선나르기, 축구(어린이/어른) 릴레이, 짝짓기, 줄다리기
- ▶ 도네이션 문의 ☎(310)569-0482 오세원 사목회장

◆ 최영신 프란치스코 형제의 종신부제 서품을 축하합니다.

- 서품식: 6월13일(토) 오전 9시
- 주례: 로저 마호니 추기경
- 장소: LA 대교구 주교좌 성당(555 W. Temple St. LA)
- ☞ 초대권과 주차료가 필요합니다. 신청: 성당 사무실 ☎(310) 326-4350, 최숙 클라라 ☎(310)210-8188 E-mail: clara@uri-us.com
- 수품기념 감사미사: 6월14일(주일) 오전 11시, 본당

◆ 제18차 남가주 한인 선택주말 참가자 모집

- 일정: 6월26일(금)~28일(주일)

- 대상: 22세~35세 미혼 남녀 * 참가비: \$200
- 지도: 김두진 바오로 신부(예수고난회)
- 장소: Mater Dolorosa Retreat Ceter
- 신청서: 본당 사무실 / lachoiceweekend@gmail.com
- 문의: 총대표 김현철 아우구스티노 ☎(310)987-8008

◆ 백삼위 본당 청소년 보호위원회(Safeguard the Children Parish Committee) 구성

- Chairperson: 송종두 요한
- Member: 신부님, 수녀님, 총회장, 부회장 1명, 총무부장, 청소년분과위원장, 주일학교 교장, 한국학교 교장, 자모회장, 청년회장, 대학부 회장, 주일학교 학생대표, 사무장

◆ 대학부 '파첸(PACEM)'창단

본당 대학생 신자들로 구성된 'PACEM'(평화)이 지난 주에 탄생했습니다. 이 그룹은 주일학교와 배론청년회 사이의 세대들로서, 앞으로 대학진학 후배들을 돕고 본당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젊은 신심단체로 활동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관심과 함께 대학생들의 멤버 가입을 적극 권장합니다.

- 가입 문의: 회장 황선홍 그레고리오 ☎(424)903-6637
홍보담당 배용우 이나시오 ☎(310)528-5240

◆ 제4차 세계 울뜨레아 대회

- 일정: 8월1일(토) 낮 12시~오후 9시
- 장소: 애나하임 컨벤션센터
- 티켓예매: \$25(식사 제공), 한인공동체에 배당된 티켓이 한정되어있으니 가능한한 빨리 구입하십시오.
- 접수: 정병옥 율리아 ☎(310)404-1607

◆ 고 장현숙 발바라 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 정인식 베드로 형제님의 부인이신 장현숙 발바라 님이 5월 12일(화) 숙환으로 선종하셨습니다. 84세. 고인의 연도와 장례미사를 14일 본당에서 치렀습니다.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5월17일(주일): 본당 체육대회, 구역별 점심 준비
- 5월24일(주일): 메모리얼데이 연휴, 점심나누기 없음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고천용	곽효식	권오상	김병조	김용상
	김재영	김정엽	김정웅	김종문	김한진	남명자
	노천수	모은기	문두현	문충한	민소예	박동수
	박영룡	송호창	신순철	신중철	안태갑	엄혜은
	오진	오태환	유선식	이귀란	이명자	이민상
	이영희	이일길	이재용	이효세	임연조	정규숙
	정병훈	정열모	정훈모	조소영	조화숙	최금옥
	최의수	홍선자	홍숙자	한길선례	이크리스	
	합계: \$3,410					

미사헌금: \$2,983

성전헌금	강숙경	고천용	곽효식	권오상	김병조	김용상
	김정엽	김종문	김한진	남명자	노천수	모은기
	문충한	민소예	박동수	박영룡	송호창	신순철
	신중철	안태갑	엄혜은	오태환	유선식	이귀란
	이명자	이민상	이영희	이재용	이효세	정규숙
	정열모	정훈모	조화숙	최의수	홍선자	홍숙자
	한길선례					

합계: \$2,340

감사헌금: 이봉덕 이광웅 장춘구

주일학교 소식

◆ 학생 견진성사 축하합니다.

- 5월15일(금) 오후 7시 마가렛 매리 본당에서 사르토리스 주교님 집전으로 13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견진성사를 받고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들이 굳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견진자 명단 : 이비미안, 배조앤, 황혜리, 정안젤라, 김종천, 서정우, 황서니, 정크리스티나, 김수지, 모안젤라, 박안젤라, 김현희, 남현우

◆ 주일학교/한국학교 휴강 안내

- 일시 : 5월24일 메모리얼데이 연휴(학생미사 있음)

◆ 첫영성체

- 학생고해성사, 리허설, 학부모 피정 : 6월6일(토) 오전 9시30분~오후1시30분(점심제공)
- 첫영성체 예식 : 6월7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중
- 신청 : 주일학교 또는 사무실(세례증명서 첨부)

◆ 여름 성경학교 신청

- 일시 : 6월26일(금) 오후 3시~27일(토) 오후 5시 백삼위 본당에서 1박2일(Overnight)
- 대상 : 2학년~7학년
- 준비물 : 침낭, 세면도구, 여벌옷 * 참가비 : \$10
- 신청 : 주일학교 또는 사무실

남가주 소식

◆ 성령강림 대축일 전야제

- 일시 : 5월30일(토) 오후 5시~10시, 남가주 전신자 대상
- 강사 : 배광하 치리아꼬 신부(춘천 갯사마니 피정의 집 원장)
- 장소 :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 내용 : 찬미/미사/특강/안수
- 문의 :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총무 ☎(213)435-7570

◆ 이냐시오 영성 1일 피정

- 일시 : 5월30일(토) 오전 9시30분~오후 5시
- 주제 : 관상하는 삶, 성찰하는 삶
- 강사 : 황정연 신부(예수회), 김요한 Br.(예수회)
- 신청 : 전아그네스 ☎(213)507-1144

◆ 제22차 성령안의 생활 세미나

- 일시 : 6월4일(목)~6월7일(주일)
- 장소 : 예수고난회 피정센터 *강사 : 배광하 치리아꼬 신부
- 참가비 : \$270(1인1실 선착순 60명)
- 문의 : 각본당 성령기도회 회장

이번 주 단체 모임

본당 체육대회 오전 10시 주일미사 후

다음 주 단체 모임

5월 사목상임위원회 오후 1시

노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차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장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5/17(주일) 본당 체육대회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5/17(주일) 본당 체육대회
	3	한길선레 스펠라스티카 218-7824	한길선레 스펠라스티카 782-1025 5/15(금)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틀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5/17(주일) 본당 체육대회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5/17(주일) 본당 체육대회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5/17(주일) 본당 체육대회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5/17(주일) 본당 체육대회
	2	박희자 마리아 791-3703	안혜진 세레나 325-6982 5/13(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강은진 켈마 214-2290	강은진 켈마 214-2290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5/17(주일)본당 체육대회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2	정정숙 율리아 365-4722 5/8(금) 오후 7시30분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혜경 레나타 808-5005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송근섭 발렌티노 (213)268-8455 5/9(토)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오석만 사무엘 5/8(금) 오후 7시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이문중 바오로 541-7860 5/9(토)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이귀란 아네스 5/14(목) 오전 10시

◎ ‘종신부제’(終身副祭, permanent deacon)란 무엇인가? (上) ◎

미국과 유럽에는 종신부제라는 성직이 있다. 부제의 유래는 초대교회의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봉사자”(사도행전 6장)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의 논쟁과 웅변적인 설교와 죽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장엄한 첫 순교에 이르기까지, 부제가 어떤 성직자인지 명확해진다. 성직(聖職)이란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들과 주교들과 사제들과 부제들과 그 후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위임하신 교회의 거룩한 직무”이다.(제4대 클레멘스 교황)

가톨릭의 교계제도(Hierarchy)에는 세 종류의 성직자(Clergy)가 있는바, 주교(Bishops), 사제(Priests), 그리고 부제(Deacons)가 있다. 교황과 추기경은 모두 주교(主教)이고, 교황도 로마의 주교이다. 주교에는 대교구를 관장하는 대주교(archbishop)도 있다. 사제(司祭)는 흔히 신부(神父, Father)라고도 하며 넓은 의미로 신부와 주교는 모두 사제이다. 신부 가운데 교구나 수도회에 크게 공헌한 바가 인정되면 교황으로부터 ‘몬시뇰’(Monsignor)의 칭호를 받을 수 있다. 부제는 사제직의 준비단계로 이해되는 임시부제(Transitional Deacons)와 한평생 부제로만 봉사하는 종신부제(Permanent Deacons)로 나뉜다. 직무상 역할은 둘 다 같으며, 종신부제 제도는 초대교회 이후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에 의해 부활된 제도로써, 그 활용은 지역 주교의 재량에 달려있다.(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3장 참조)

현재까지 부제 출신으로 성인품에 오른 분은 모두 117명이다. 그 중에서 첫째는 사도행전에 잘 전해져 오고 있는 최초의 순교자 스테파노(+35년경) 성인이다. 그 외에도 라우렌시오 성인(+258년), 아나타시오 성인(+462년),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성인(+1226년) 등이 있다. 교황 그레고리 7세(1020-1085)는 부제에서 교황으로 선출된 분이다. 그의 초기 부제활동은 대부분 로마에서 보냈고, 전임 교황 그레고리 6세의 보조자였는데 교황으로 선출된 것이다.

부제(Deacon)라는 말은 원래 ‘Diakonia’(Ministry)라는 말에서 유래하며, 봉사자를 뜻한다. 한국말 ‘부제(副祭)’라는 표현은, ‘사제직을 돕는 품계’라는 점만 드러내지만, 보다 더 정확한 개념은 “부제들은 오직 봉사하기 위하여 주교의 안수를 받고 ..., 주교 및 주교의 사제단과 일치하여, 전례와 말씀과 사랑으로써 백성에게 봉사하는”(교의헌장 29조 참조) 성직자이다. 즉, 부제는 사제와 마찬가지로 주교의 협조자이지만, 사제는 아니고, 그렇다고 평신도도 아닌 성직자이다.

부제는 명예(Honor)도 보수(Reward)도 없는 서품된 봉사자(Ordained Ministry)이다. 부제들은 하느님의 신비를 거행하는 자리에서 주교를 보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체분배, 세례 및 혼인성사의 주례와 축복, 복음선포와 강론, 장례식 거행 등의 전례를 수행한다. 즉, 부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복음을 봉독하고 강론을 할 수 있으며, 세례, 혼인, 장례 등을 주례하는 봉사직은 수행할 수 있으나, 고해성사와 병자성사, 그리고 성체성사 때의 성체축성 즉, 성변화(Consecration)의 권한은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사제가 안 계실 경우 성당이나 공소 등에서 미사성체를 거행하여야 할 경우 미리 축성된 성체를 모셔다가 ‘말씀의 전례’와 ‘영성체예식’만을 주관할 수는 있다. 즉, 통상 미사에서와 같이 시작예식과 말씀전례, 그리고 성찬전례(Liturgy of the Eucharist)의 시작부분인 예물준비에서부터 마침영광송까지를 제외한 영성체예식(Communion Rite)을 주재할 수 있다. 한편, 부제가 지역주교로부터 어느 특정 본당에 보직을 받게 되면, 소속 본당 신부님의 감독과 지휘를 받는다.

왜 종신 부제가 필요한 것인가? 이는 사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종신부제제도 자체가 더 필요하고 이에 따른 종신부제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아직 종신부제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약 30년 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다. 물론 미국에서도 종신부제제도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교구도 몇 있다. 현재 미국교회의 상황을 보면 부제는 해마다 늘어나고 사제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필리핀, 한국, 중국과 같은 아시아교회에서는 그나마 사제성소가 풍부한 편이라, 종신부제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어 “부제”라고 하면 사제직을 준비하는 단계의 부제를 말하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선호하는 종신부제직은 평생토록 부제로서 봉사하는 성품직무를 말한다.

[◆최영신 프란치스코 / 종신부제후보자 / 계속]